

새로운 돌봄 사각지대, 고령장애인

목차

- I. 고령장애인과 돌봄 사각지대
- II. 고령장애인의 돌봄 관련 실태
- III. 정책 제언

고령장애인과 사각지대

- ▶ 법적·제도적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기존 장애와 조기노화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 고령장애인은 타 연령에 비해 경제 및 건강상태가 불안정하고, 부모와의 사별, 기타 가족과의 연락두절이나 사회와의 연결망 단절, 1인 가구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큼. 경기도는 중증 고령장애인 중 약 8.4%로 추정됨

고령장애인의 돌봄 실태

- ▶ 고연령일수록 여성의 비중이 높고 독거 및 2인가구의 비율이 높음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의 비율은 62.4%→60.9%→43.4%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비율은 37.6%→39.1%→56.6%로 증가
 - 또한, 독거(27.6%→29.9%→33.1%) 및 2인가구의 비율(35.1%→51.0%→42.4%)은 모두 증가
- ▶ 고연령일수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으나 대부분 사적 돌봄을 받기 때문에 평균 경험율은 19.8%로 낮은편임
 - 72.9%가 돌봄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가족 및 이웃 등 사적 돌봄자가 78.0%로 나타남
- ▶ 고연령일수록 돌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가족 돌봄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돌봄부족'의 비율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37.8%→50.0%→51.2%로 증가, 여성 52.5%, 남성 41.6%로 여성이 높게 나타남
 - 돌봄 부족 이유는 '가족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61.1%)가 가장 높음

제 언

- ▶ 50세 이상에 대한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제공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고령장애인에 대한 추가 서비스 제공 및 가산급여 인상 등 공적서비스 확대 필요



ISSN 2982-5547

고령장애인은 기존 장애와 노화로 이중고를 겪음

고령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기존 장애와 노화에 따른 변화로 이중고를 겪음

- ▶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최근 고령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5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도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계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고령자인 반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만 6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중고령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
 -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을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정의¹⁾, 고용과 관련해서는 45세²⁾에서 50세³⁾로, 최근 연구에는 40세⁴⁾ 또는 50세 이상⁵⁾으로 정의함
 -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정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⁶⁾와 최근 고령장애인 관련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 고령장애인은 이중의 어려움을 가짐
 - 장애인의 노화로 인한 변화는 기존의 장애와 노화에 따른 변화가 중첩되어 '이중위험(double risk)'을 발생시킴⁷⁾
 - 첫째, 기존의 장애로 인한 사회·심리·신체·정신적인 어려움과 노화로 인한 측면이 가중되어 개인이 갖는 어려움이 더 가중됨⁸⁾
 - 둘째, 조기노화임. 즉, 조기노화는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 대략 45~55세에 노화가 시작하여 신체·기능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함

돌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 증가

- ▶ 돌봄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개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⁹⁾
 -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나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는 대인서비스로 신체수발, 가사수발, 활동보조, 정서적 지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은 폭넓게 구성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돌봄의 핵심인 활동지원서비스¹⁰⁾를 바탕으로 살펴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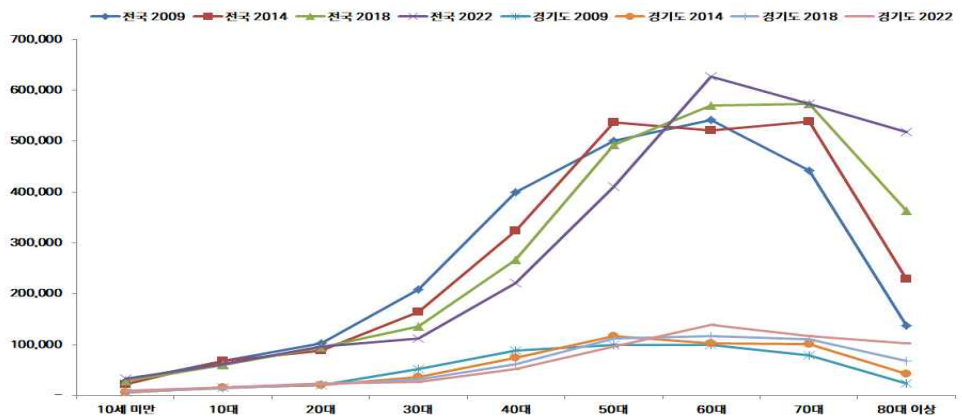
1) 정덕진(2014).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4(2), pp 247-275
 2) 재철(2012). "고령장애인의 노동시장 이중차별 실증적 분석-임금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2), pp 79-102
 3) 노승현(2012). "장애노인 가구의 과부담 보건 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3), pp 51-77
 황주희(2015). "장애인의 고령화 : 실태 및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78호
 4) 김정석·신유라·노승현(2017).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중년기와 고령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54, pp 77-96
 5) 노승현(2017).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장벽요인 및 촉진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43(3), pp 67-79
 6) 황주희(2015). "장애인의 고령화 : 실태 및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78호
 7) 노승현(2007). 노화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구축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8) 이병화 외(2019).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연구
 9) Jorma Sipilä and Teppo Kröger(2004). Editorial Introduction European Families Stretched between the Demands of Work and Car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8(6). pp 557-564
 10)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 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그 밖의 제공서비스(양육 보조, 의사소통 지원 등)

I. 고령장애인과 돌봄 시각지대

장애인의 고령화율은
비장애인의 3배로
향후 고령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비

- ▶ 전국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장애인의 고령화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는 비장애인의 고령화율에 비해 약 3배(2022년 기준, 65세 이상)에 해당됨
 - 전국 비장애인 고령화율은 18.0%이나 장애인은 48.9%이며,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한 50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66.8%, 2014년 73.3%, 2018년 77.3%, 2022년 80.2%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약 13년간 1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2009년 61.9%, 2014년 70%, 2018년 74.6%, 2022년 77.9%로 전국보다 비율이 낮으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약 13년간 1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그림 1〉 고령장애인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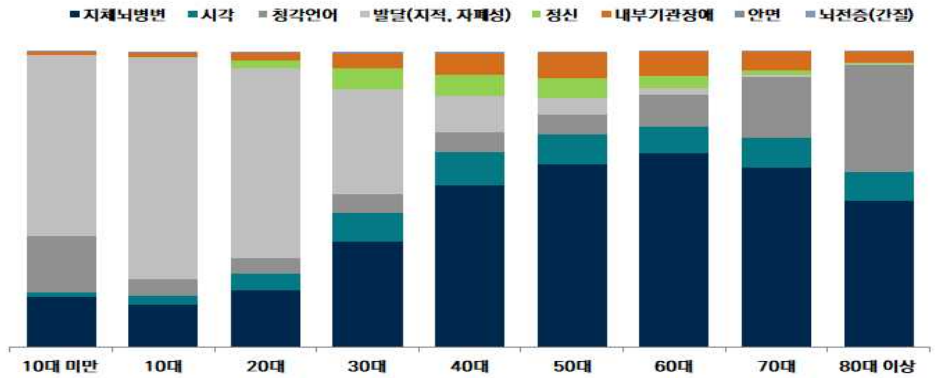
자료: 각년도 장애인 등록현황(보건복지부, 2022) 및 경기도 내부자료(2022.12.) 재구성

장애유형에 따라 고령화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른 대비 필요

- ▶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고연령에서는 지체뇌변병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의 비율이 높으나 저연령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 발달장애인을 불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로 인정되기 시작함. 특히, 지적장애는 1989년 정신지체로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자폐성 장애는 발달장애로 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07년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개칭됨.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발달장애인은 50세 미만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발달장애인은 장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장애발생 시기가 이른 경우로 고령화된 장애인으로 기존의 장애에 고령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징이 있음
 -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장애는 감소하나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인은 고령화됨에 따라 대사질환(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이차 후유질환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노화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경우(노인성 장애인)임

공급부족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부족, 중증에 대한 서비스 기피, 사회연결망 단절로 사각지대 발생

〈그림 2〉 장애유형과 연령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22.12.)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경제적 취약 및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족, 서비스 인지 부족, 제공인력의 서비스 제공 기피 등으로 돌봄사각지대 발생

-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장애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22년 13.5만명 → '23년 14.6만명)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 ▶ 또한 고령장애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 갑작스러운 돌봄 필요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고령장애인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 고령장애인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돌봄 서비스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 현재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이나 기타 소득계층은 급여량과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9,300원~187,700원을 부담해야 함¹¹⁾
- ▶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부족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 기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2020.12.29.)을 통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서비스 시간 감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 본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 등임
 - 또한 장애인이 고령화로 인해 중증화 되면서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수 있음. 활동지원서비스 미사용 사유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이며,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장애인의 99.8%가 중증장애인임¹²⁾

11)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12) 인디고(2022.8.5.) 활동지원사 전문성 높이고,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막는 대책 내놓아. <https://theindigo.co.kr/archives/37619>

I. 고령장애인과 돌봄 사각지대

인지적 장애를 수반한 경우, 사각지대에 더 빠지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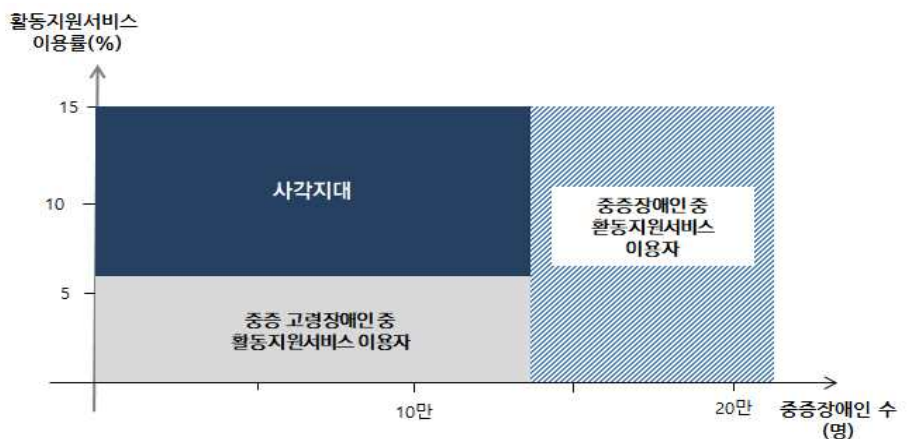
경기도 중증 고령장애인의 최소 8.4%가 사각지대로 예측

- ▶ 고령장애인은 부모와의 사별, 기타 가족과의 연락두절이나 사회와의 연결망 단절, 독신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독거생활을 유지해온 경우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¹³⁾이라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큼
- ▶ 신체적 장애와 더불어 인지적 장애를 수반하고 있는 장애인은 더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움
 - 첫째,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 저하로 인해 상황대처력이 낮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둘째, 인지 기능 장애가 오래 기간 지속된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은 지속된 돌봄 부담으로 가족해체 등 사회적 연결망과 단절되기 쉬움
 - 셋째, 인지 기능 장애는 노화로 인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따라 돌봄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큼

경기도 고령장애인 돌봄사각지대는 중증 고령장애인의 최소 8.4%로 예측

- ▶ 2023년 3월 현재,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32,345명, 경기도 중증장애인 215,402명,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은 15.0%임¹⁴⁾
- ▶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자 8,996명, 경기도 중증 고령장애인 136,202명 (경기도 전체 장애인 중 23.3%).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6.6%임
- ▶ 돌봄이 더 요구되는 중증 고령장애인의 이용률이 경기도 전체보다 2배 이상 낮음. 이에 따라 최소한 8.4%의 사각지대(15.0% - 6.6%)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림 3〉 경기도 고령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주: 경기도 내부자료(2023.3.)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

13) 시사위크(2023. 4.20). 장애인구의 고령화, 두배 이상 빠르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67>

14)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장애인만 이용한다는 가정 - 2019년 7월 등급제폐지 이후 경증장애인까지 이용할 수 있음

II. 고령장애인의 돌봄 관련 실태

고령일수록 여성과 독거 및 2인 가구의 비율이 높음

경기도 장애인 50세 이상 약 1,209명 분석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¹⁵⁾ 원자료 중 경기도 장애인 50세 이상 약 1,209명 분석
 -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돌봄 특성(공적돌봄서비스여부, 돌봄자 여부 및 유형, 돌봄 충분도, 돌봄이 부족한 이유) 등을 분석함
 - 연령대 구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준고령(50~64세), 초기고령(65~74세), 후기고령(75세 이상)으로 설정함

고령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및 돌봄의 주요 특성

- ▶ 고령의 여성장애인 및 독거 장애인이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 큼
 - 고령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고 사별의 비율이 높으며 가구원수는 독거 및 2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어 성별과 독거 유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남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62.4%→60.9%→43.4%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은 37.6%→39.1%→56.6%로 증가함
 - 결혼상태 중 사별은 연령증가에 따라 6.3%→19.8%→47.3%로 증가하였으나, 이혼·별거는 20.4%→15.9%→5.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수의 경우, 독거는 연령 증가에 따라 27.6%→29.9%→33.1%로 증가하였으며, 2인가구도 증가 경향을 보임(35.1%→51.0%→42.4%)

〈표 1〉 고령장애인의 일반특성

(단위: %)

구 분		50~64세 (n=489)	65~74세 (n=335)	75세 이상 (n=385)	전체 (N=1,209)
성별	남	62.4	60.9	43.4	55.9
	여	37.6	39.1	56.6	44.1
	계	100.0	100.0	100.0	100.0
결혼상태	유배우	60.1	60.5	45.7	55.6
	사별	6.3	19.8	47.3	23.1
	이혼·별거	20.4	15.9	5.5	14.4
	미혼	13.1	3.9	1.6	6.9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수	독거	27.6	29.9	33.1	29.9
	2인가구	35.1	51.0	42.4	41.9
	3인가구	19.6	10.7	10.9	14.4
	4인가구	12.7	3.9	6.0	8.1
	5인이상가구	5.1	4.5	7.6	5.7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수) 평균	2.3	2.0	2.1	2.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 고령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 크고, 향후 늘어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대비 필요

- 장애유형은 전체적으로 지체뇌병변/안면 장애인의 비율 높고 정신적 장애, 내부장애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청각·언어장애는 연령이 많을수록 비율이 높고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이나 대부분 발달장애)는 연령이 많을수록 비율 낮음

1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II. 고령장애인의 돌봄 관련 실태

고령장애인의
공적서비스 이용률
낮음

- 심한 장애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게 나타남. 이는 중증인 경우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으로 예측됨¹⁶⁾
- 장애발생시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50세 이상에서 발생비율이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가장 고령인 75세 이상은 50세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비율이 높고, 가장 연령이 낮은 50~64세는 만 18세 미만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령에서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 2〉 고령장애인의 장애특성

(단위: %)

구 분		50~64세 (n=490)	65~74세 (n=334)	75세 이상 (n=386)	전체(경기도장애인) (N=1,210)
장애 유형	지체뇌병변/안면 시각	68.2	64.7	61.4	65.0
	청각·언어	6.5	15.0	25.6	15.0
	정신적장애	10.2	2.7	0.8	5.1
	내부기관장애	6.9	8.4	3.4	6.2
	계	100.0	100.0	100.0	100.0
장애 정도	심한장애	39.9	33.8	20.0	31.9
	심하지 않은 장애	60.1	66.2	80.0	68.1
	계	100.0	100.0	100.0	100.0
장애 발생 시기	만18세미만	22.7	13.4	5.7	14.7
	18~49세	54.4	24.8	9.1	31.8
	50세 이상	22.9	61.8	85.2	53.5
	계	100.0	100.0	100.0	100.0
(장애발생시기) 평균값		33.9	46.8	60.1	45.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고령장애인은 대부분 사적 돌봄을 받기 때문에 사적 돌봄 부재시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 큼

- 고령장애인의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은 낮으나(19.8%), 고령장애인 중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더 고령이 될수록 돌봄 욕구가 크고 그에 따라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3〉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여부

(단위: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경험	성별		연령별			전체 (N=580)
	남 (n=299)	여 (n=280)	50~64세 (n=193)	65~74세 (n=162)	75세 이상 (n=225)	
이용 경험 유	15.7	23.9	16.1	19.1	23.6	19.8
이용 경험 무	84.3	76.1	83.9	80.9	76.4	8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72.9%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돌봄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은 사적 도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가족 및 이웃 등이 78.0%이며, 더 고령으로 진행될수록 배우자나 부모에 의한 돌봄보다는 자녀, 친구, 이웃의 비율이 높아짐. 이는 자녀, 친구, 이웃 등은 배우자나 부모보다 상대적 유대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더 고령으로 진행될수록 장애인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6) 서울신문(2022.11.02.) 중증장애인 평균수명 짧지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2500156>. 최중증 1급 장애인 평균수명 69.3세, 2급 장애인 72.4세. 한국인의 기대수명 82.4세.

II. 고령장애인의 돌봄 관련 실태

돌봄제공자의 78%가 가족 및 이웃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 부족 많음

〈표 4〉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돌봄자 여부와 돌봄자 유형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N=579)
	남 (n=299)	여 (n=280)	50~64세 (n=192)	65~74세 (n=162)	75세 이상 (n=225)	
예	75.3	70.4	69.3	79.6	71.1	72.9
아니오	24.7	29.6	30.7	20.4	28.9	27.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표 5〉 돌봄자 유형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N=422)
	남 (n=224)	여 (n=197)	50~64세 (n=132)	65~74세 (n=129)	75세 이상 (n=161)	
배우자	71.4	34.0	62.1	65.9	37.3	53.8
부모	1.3	3.6	6.8	0.8	0.0	2.4
자녀	5.8	33.0	6.1	11.6	34.2	18.5
형제자매	1.8	2.0	4.5	0.8	0.0	1.7
손자녀	0.4	1.5	0.0	1.6	1.2	0.9
친구·이웃	1.3	0.5	0.0	0.8	1.2	0.7
활동지원사	5.8	4.6	8.3	5.4	3.1	5.5
가정봉사원	0.9	0.5	1.5	0.8	0.0	0.7
간병인	0.9	1.5	0.0	0.8	3.1	1.4
요양보호사	7.6	16.2	6.1	10.9	17.4	11.8
기타	2.7	2.5	4.5	0.8	2.5	2.6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중증 여성장애인 및 고령에 장애가 발생하는 내부장애 등이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 큼

- 돌봄 충분도를 살펴보면, 고 연령이 될수록 부족하다(부족+매우 부족)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돌봄이 부족하다는 연령에 따라 37.8%→50.0%→51.2%로 증가하였으며, 여성 52.5%, 남성 41.6%로 여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고 연령일수록 돌봄이 더 필요하며, 고 연령에 여성이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6〉 고령장애인의 돌봄 충분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N=422)
	남 (n=226)	여 (n=196)	50~64세 (n=132)	65~74세 (n=130)	75세 이상 (n=160)	
매우 충분	2.7	4.1	3.0	1.5	5.0	3.3
충분	55.8	43.4	59.1	48.5	43.8	50.0
부족	33.2	46.9	29.5	42.3	45.6	39.6
매우 부족	8.4	5.6	8.3	7.7	5.6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돌봄지원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족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61.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한 장애로'(17.7%), '활동지원시간 부족'(11.0%) 등으로 나타남
- '가족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는 공적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돌봄이 필수인 상황에 가족도 고령이거나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해서 관계망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장애가 심한 경우 활동지원사가 기피하여 매칭되지 않아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됨

II. 고령장애인의 돌봄 관련 실태

돌봄지원 부족의
이유는 가족이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 가장 큼

- 또한 ‘활동지원시간 부족’은 등급제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신체적 기능 제한, 직장·학교 등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엄격성 때문으로 종합조사결과 1구간(15개 구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7)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7〉 고령장애인의 돌봄지원이 (공·사적으로) 부족한 이유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전체 (N=198)
	남 (n=93)	여 (n=103)	50~64세 (n=51)	65~74세 (n=65)	75세 이상 (n=82)	
심한 장애로	16.1	18.4	15.7	15.4	20.7	17.7
가족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62.4	61.2	54.9	64.6	62.2	61.1
활동지원시간 부족	11.8	17.5	21.6	15.4	11.0	15.2
활동지원사 업무 아님	4.3	2.9	2.0	3.1	4.9	3.5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	-	-	-	-	-
외부활동(자립생활 등)을 위해	4.3	0.0	5.9	0.0	1.2	2.0
기타	1.1	0.0	0.0	1.5	0.0	0.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 돌봄지원이 부족한 이유를 장애유형과 정도로 살펴보면, ‘가족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가 심한 장애보다 높고, 장애유형은 내부장애가 제일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제 폐지이후 심한 장애에 한정되어 있던 활동지원서비스가 심하지 않은 장애까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그 엄격성 때문에 타 장애유형보다 신체활동 기능이 좋은 청각언어장애와 내부기관장애 등이 가족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또한 종합조사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심하지 않은 장애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8〉 고령장애인의 돌봄지원이 (공·사적으로) 부족한 이유(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장애정도		전체 (N=198)
	지체·뇌병변·안면 (n=112)	시각 (n=18)	청각언어 (n=33)	정신적 장애 (n=19)	내부기관 장애 (n=16)	심한장애 (n=117)	심하지 않은 장애 (n=80)	
심한 장애	17.0	5.6	15.2	42.1	12.5	23.1	8.8	17.7
가족 한계	56.3	61.1	78.8	42.1	81.3	53.0	75.0	61.1
활동지원 시간 부족	18.8	27.8	0.0	15.8	6.3	18.8	8.8	15.2
활동지원 업무 아님	5.4	0.0	3.0	0.0	0.0	4.3	2.5	3.5
응급상황 대비 위해	-	-	-	-	-	-	-	-
외부활동	2.7	0.0	3.0	0.0	0.0	0.0	5.0	2.0
기타	0.0	5.6	0.0	0.0	0.0	0.9	0.0	0.5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재분석

17) 비마이너(2020.625). 종합조사표 도입1년.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08>

공적서비스 확대, 대상
연령에 맞는 홍보와
제공인력 전문교육
필요

고령자에 대한 추가 서비스 제공과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산 급여 인상 등 통한 공적 서비스 확대 필요

- ▶ 고령장애인의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이
쉽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기 쉽기 때문에 공적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장애인은 고령과 장애인의 복합적인 특성으로 중증장애인일 경우가 높음. 처우
문제와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등이 맞물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
- 현재 시간당 기본 15,570원을 지급, 중증장애인 추가 가산급여로 3,000원을 지급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음. 고령의 중증장애인은 현 야간급여액 23,35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5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TV 등 정보매체와 행정라인을 통한 문자 등 관련 홍보활동 강화 필요

- ▶ 경기도 장애인의 돌봄서비스¹⁸⁾ 인지율은 2021년 기준 31.8%¹⁹⁾이나 고령장애
인의 경우, IT 기기 등 정보화 기기 취득율과 사용률이 낮기 때문에 제도변경에
따라 관련 정보습득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 경기도 일반노인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도는 평균 약 36.7점(2021년 기
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²⁰⁾에 따라 고령장애인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
장애인의 정보 취득 방법으로 정보매체 38.2%, 친척친구이웃 26.6%, 행정기관
17.0%, 복지관련기관 10.2% 등으로 보고²¹⁾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개정(2020.12.29.)을 통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가 65세가 계속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를 입었더라도 활
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²²⁾

성별, 장애유형 등을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전문 심화교육 강화 필요

- ▶ 활동지원사는 총 5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나, 개별 장애특성을 이해
하고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격 취득 후 연
2회 보수교육 역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 1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필요
한 서비스의 양과 이용자의 욕구가 중요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의 전문성²³⁾이 이에 못 미침

18) 개인위생관리, 가사지원, 이동 및 외출, 응급상황, 돌봄비용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포함

19) 유병선 외(2021).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20) 유병선 외(2021).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2) 일선기관의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

23) 인디고(2022.8.5.) 활동지원사 전문성 높이고,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막는 대책 내놓아. <https://theindigo.co.kr/archives/37619>